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_ 제 19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월 7일

함즐함울

www.pcltv.org

2006-2007 송구영신예배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사진〉서정하집사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07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12월 31일 대예배실에서 드러졌다. 본 예배에 앞서 11시 10분부터 찬양예배가 시작되었다. 일찍부터 예배실을 뿔뿔하게 채운 많은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지난 죄를 회개하며 새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예배의 말씀은 대한성서공회의 상임총무인 민영진 목사가 전했다. 민 목사는 시편 127편 1장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전한다. 성경은 뒤이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덧붙였다.

민목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들이 쌓은 업적, 노력, 성과와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전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자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는 구절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풀어 해석이 가능하다. 일 자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편파성'이라고 민 목사는 강조했다.

한편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농부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라고 전한다.

시편 69편 9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은택으로 땅을 돌보시고 윤택하게 만들며',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 대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11절 '한해를 관철하신다.'고 증거 했다.

(2면에 계속)

함즐함울 격주로 발간

재미있고 유익한 교회 신문으로...

함즐함울

2007년부터 교회신문, 함즐함울이 격주로 발간

된다. 로템나무, 나의신앙이야기, 수화 등 기존의 기사들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사들과 목회자 칼럼 등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다. 함즐함울 모든 기사들은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신앙이야기_김금선

2면

청년부 세례예배

2면

교육전도사 부임인사

3면

아버지 학교 개강

4면

로템나무

새해에는

세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과
남이 만들어준 나의 색깔이 있다.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설상 같다 해도
서로가 좋아하는 색깔은 분명히 다르다.

조금 강한 색을 가진 사람
희미하게 약한 색을 가진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한데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가 사랑을 하며
질투하지 않고
홍분하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남을 폄하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2007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세상이야말로
빛나는 세상이지 않을까?

삶이란 항상 모자란 듯 사는 것이라는데...



신형섭(함즐함울 기자)

※조선족 청소년을 위한 도서기증※

중등 2부에서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보낼 책을 기증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함께 나누고픈 책이 있으면 기증해주세요. ※문의: 채문식 전도사

오늘의 말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주소서(시편88:1-2)

30CUP 특강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장로

“나의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1월 14일 주일 오후 1시 15분 1층 제3집회실

예배의 현장/성탄절예배



대예배실, 중예배실, 소예배실, 각종 모든 부속실들과 식당까지 가득가득 매웠다. 지난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성도들은 성탄축하예배에 참여한 것이다.

모인 성도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 찬송과 기도가 이어지고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특별 순서도 있었다. 설교는 영등포교회의 원로목사인 방지일 목사가 했다. 한국교회의 산 역사로 믿음을 지켜온 96세의 노종은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또렷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도전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로마서 7:19-21)

노종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원수는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경고했다.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할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이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다.

올해의 성탄절은 유난히 맑고 따듯했다. 춥고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는 복된 날이었다. (이정애 기자)

“우리의 원수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청년부 세례예배〉 주님의 딸로 거듭나...



12월 24일 청년부 예배는 세례예식으로 드러졌

다. 7명의 자매들이 세례예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의 딸로 거듭남을 간증했다. 한 자매가 어려움 중에서 다시 태어남을 주님 앞에 간증할 때 같이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의 숙연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윤은성 목사는 (눅2:8~14)의 말씀으로 큰 기쁨 속에 좋은 소식을 살아가며 그 소식을 항상 간직 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신형섭기자)

오늘 기도



십자가에 못박힌 채로
한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23:42-43)

(1면에 이어서) 2006-2007 송구영신예배

민영진 목사는 '농부는 씨를 뿌리기만 할 뿐 씨를 띄우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에는 주님의 능력이 임재 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의 업적과 성과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배하는 중에 2007년이 밝았다. 주님의교회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은 강단 위로 올라와 전교인과 새해인사를 나누었고 설렘과 떨림 속에 송구영신예배는 막을 내렸다.

2007년도에는 주님의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야하는 큰 기도제목과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사회, 정치, 경제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를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값진 새해가 되어야 한다. (최사라기자)

나/의/신/앙/이/야기

“내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교회에 다니기는 했었지만 지각쟁이의 삶을 버리지 못해 찬양을 항상 놓치기 일쑤였던 어느 날 제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이상하게도 주님이 내 갈급함을 아신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던 제가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새로 왔고 점점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즈음에 1달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나를 누르던 엄청난 갈급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성경에 대

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는 가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여행을 갔다 온 후 청년새벽기도가 시작되었었고 또 마침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벽기도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말씀공부를 했을 때는 한 주간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응답받는 특별한 체험도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졌고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내 마음에 갈급함의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 내 갈급함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

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것들로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완벽해져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무언가 두드러진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힘겨워했던 적도 있었지만...제가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주님의 웃으시는 얼굴에 만족하게 되는 법을 알아가는 이 시점에서 나의 모습에도 점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금선(청년부)



주님의교회 교육부를 섬길 새로운 교육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우리 전도사님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만나보세요!

(취재 허진, 이정애 기자)



[유아부] 전은숙 전도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잠2:4)'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은 그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이 폴폴 묻어나는 유아부 아이들,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들의 마음을 더 사랑스럽게 일구어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김성목 전도사

주님의교회라는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닌 'Both All'의 시대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이 시대에 우리 무지개(Rainbow) 부서는 말 그대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모든 것이 아우러진 아름다운 부서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우리 무지개 부서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롬!



[유년부] 이희영 전도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신앙인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곳, 은혜와 따뜻한 위로가 있는 신앙공동체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 사랑과 친구 사랑이 실천되는 곳, 찬양이 흘러넘치고 신앙함에 기쁨을 배우는 곳 이곳이 바로 유년부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 유년부 교육을 통해 예수님으로 비전 삼는 이 시대의 영 리더(young leader)로 자라날 어린이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어린이를 뜨겁게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유년부는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시 새시대와 새해를 기대합니다.



[초등부] 최락전도사

살롬! 먼저 지면을 통해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멋지고 건강한 교회인 '주님의 교회'의 초등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초등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세요. 새해에도 성도님들 가정에 더욱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서는 복된 한 해 되길 기도드립니다.



[소년부] 신상욱전도사

주님의교회 소년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 신비함을 맛보아야 할 때입니다. 소년부에 속한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더불어 소중한 공동체를 창조해가기를 바랍니다.



[중등2부] 채문식전도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등 2부는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가득히 채우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중등 2부 전체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가득한 중고등부가 되려 합니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추천도서 시리즈 ① 우동윤목사

「희망의 밥상(Harvest for Hope)」-제인구달 (Jane Goodall)

당신이 가족의 밥상을 위해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가족의 건강? 가격만족도?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인 제인 구달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으며 어떤 경로로 우리 밥상까지 올라왔는지, 우리의 건강과 나아가 지구의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먹거리에 대한 나의 선택이 자녀와 가족 뿐 아니라 지구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지하게 된다. 지구생태계 및 세계 곳곳의 생산자와 먹거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 덕목이

라면, 먹거리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영역과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유익이다.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록된 신앙서적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직결되는 관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장에서 장을 보는 행위는 가정주부의 단순한 소비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른 생명운동이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사회변혁의 중요한 현장이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먹거리 문제가 나의 건강을 넘어서 이웃과 동물 등 지구촌 온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삶에서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에 덜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위한 기도를 반복해 온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신을 위해 서라도 이 책이 도움이 될 법하다.

내 경우, 이 책을 보고 나니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갈 마음이 더해졌다.

가정주부의 장보기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행위가 아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장보기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온 생명을 향한 신앙적 선택과 결단의 현장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마6:31)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던 것이 아니었던가?(마6:32) 그러나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는 맥락에서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화두가 될 만한 오늘의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서명: Harvest for Hope
저자: Jane Goodall
출판사: 사인인스 북스

Misson 한글학술,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밥을 안 먹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



‘안’과 ‘않’이 헷갈려요!

의외로 ‘안’과 ‘않’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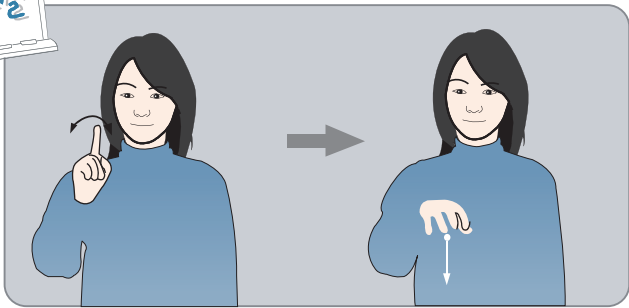
‘안’과 ‘않’은 아래에 ①과 ②처럼 쓰입니다.

①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 ②철수가 밥을 먹지 않는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다)’은 ‘아니하(다)’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않’의 ‘ㅎ’은 ‘하다’의 ‘하’가 줄어든 모양입니다. 위의 ①과 ②를 본디말로 바꾸어보면,

①‘철수가 밥을 아니 먹는다. ②‘철수가 밥을 먹지 아니한다.

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안’과 ‘않’이 헷갈리는 곳에 ‘아니’와 ‘아니하’를 넣어서 말이 되는 걸로 쓰면 됩니다. ‘아니’가 자연스러우면 ‘안’을 쓰고, ‘아니하’가 자연스러우면 ‘않’을 쓰세요. (이정애기자)



어디, 어디서(where)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펴 좌우로 흔든 후, 오른손을 구부려 가슴 앞에 내려 놓으세요

“나의 작은 몸짓에 위로받게 하소서”



지난 12월 30일 호스피스 월례회가 열렸다. 호스피스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월례회에 모인 팀원들은 예배와 식사를

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자신들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믿음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서게 해주신 그 은혜에 말이다.

팀원들은 서로의 간증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위로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나 호스피스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이 행복한 사연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말기 암환자는 죽음을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에서는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봄가을에 한 번씩 열리는 무지개 호스피스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2007년도 팀장을 맡은 허명숙 권사에게 하면 된다. (신형섭기자)

영어예배 크리스마스 파티



2006 12월 23일 주님의교회 영어예배의 *Potluck Dinner Party가 있었다. 닭도리탕, 샐러드, 등 준비해온 풍부한 저녁식사를 나눈 후 크리스마스 찬

송가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12 Days of Christmas"이란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케를 올들과 함께 불렀다. 각 조마다 12개의 선물의 올들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웃으며 이 순서를 즐길 수 있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선물교환 시간이었다. 모든 참가자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와 재미있는 게임으로 산타클로스가 선물들을 나누워 주었다.

이번 행사는 영어예배사역팀이 주관했지만, 일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모든 순서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됨으로 모두 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밤이었다. 영어예배사역팀은 앞으로도 영어예배 성도들과 일반 성도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제공: 영어예배사역팀)

*Potluck은 참가자들이 요리를 하나씩 준비해오는 모임이다.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가 다시 열립니다.

2005년과 2006년 우리 교회에서 감동적으로 개설되었던 아버지학교가 금년 1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아버지학교는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주일에 개설되는데, 매주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주간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계속되며 설날이 있는 주간은 제외된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던 아니던 여러 대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남성이라는 주제로 진정한 남성상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남성문화에서 살아왔는가를 깨닫고 진정한 남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또,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한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며, 아버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라는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마지막 주에는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아버지가 아내의 상처와 아픔을 세족식 등을 통해 씻어주며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 됨과, 아버지가 또 육적, 정서적, 영적 순결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치게 된다.

(박중순집사)

※문의: 가정사역팀 조선연 집사(017-747-1233)

〈부부세미나〉

부부는 정서적·영적·지적·성적 친밀감으로 산다!

가정사역팀과 동부지역 아버지학교가 연합으로 준비한 ‘행복한 부부세미나’가 12월 30일(토) 오후 7시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통로에도 간의의자를 설치해야 할 만큼 많이 참석한 700여 성도들의 기대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 교회 박중순 안수집사의 지도로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아버지 학교 국제본부장 김성목 장로와 부인인 어머니학교 본부장 한은경 권사의 본격적인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의 서로 다른 점 즉 생각의 차이, 언어의 습관과 표현 방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 강사부부의 실생활을 예로 들어가며 재미있고 알아듣기 쉽게 강의가 진행될 때 참석자들은 너무나 닮은 자신들의 부부생활을 생각하며 폭소를 하고 즐거워하며 공감 하였다.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부부의 성 이야기가 주제였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하였고 부부는 정서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 지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이라는 부부의 친밀감을 느낄 때 진정한 한 몸이 됨을 느낄 수 있다. 남녀가 서로 어떻게 다르며 서로를 통해 어떤 부분의 충족을 원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각 가정에서 있었던 부부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회복과 치유의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사제공: 가정사역팀)

